

2024.06.18.(화) 증권사리포트

빙그레

날씨는 우리 편

[출처] IBK투자증권 김태현 애널리스트

2분기도 호실적 기대

2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4,234억원(+8.9% yoy), 601억원(+30.0% yoy)으로 추정되며, 컨센서스(4,126억원 / 513억원)와 IBKS 이전 추정치(4,160억원 / 574억원)를 상회할 전망이다. 국내외 냉장과 냉동 부문의 고른 성장세가 예상된다. 또 원유 수입가격 안정화에 따른 원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분기 부진했던 해태아이스크림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보다 더 덩다

부문별로, 냉장류(별도_유음료 등) 매출이 1,689억원(+7.5% yoy)으로 전망된다. 바나나맛우유 가격인상 효과가 이어지는 가운데, 냉장커피도 기저 효과와 제품 라인업 확장으로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닥터캡슐(드링크형) 판매 호조로 발효유 매출도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분기 바나나맛우유 판매 호조로 수출 증가율이 34%(YoY)를 기록했다. 2분기도 미국 한인 마켓과 중국 편의점·오프라인 할인매장 등으로 납품이 확대, 두자릿대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냉동류(별도_빙과류, 스낵, 더단백 등 상온 제품) 매출액은 1,860억원(+9.5% yoy)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대비 4~5월 평균 기온이 높았고, 첫 폭염특보가 일찍 발령 됐음을 고려하면 빙과 판매 개선 기대감이 유효하다. 더 단백질 제품과 상온 커피도 각각 20%(yoy), 5%(yoy) 성장할 전망이다. 빙과 최대 수출국인 미국에서의 메로나(판매비중: 80~90%) 판매 실적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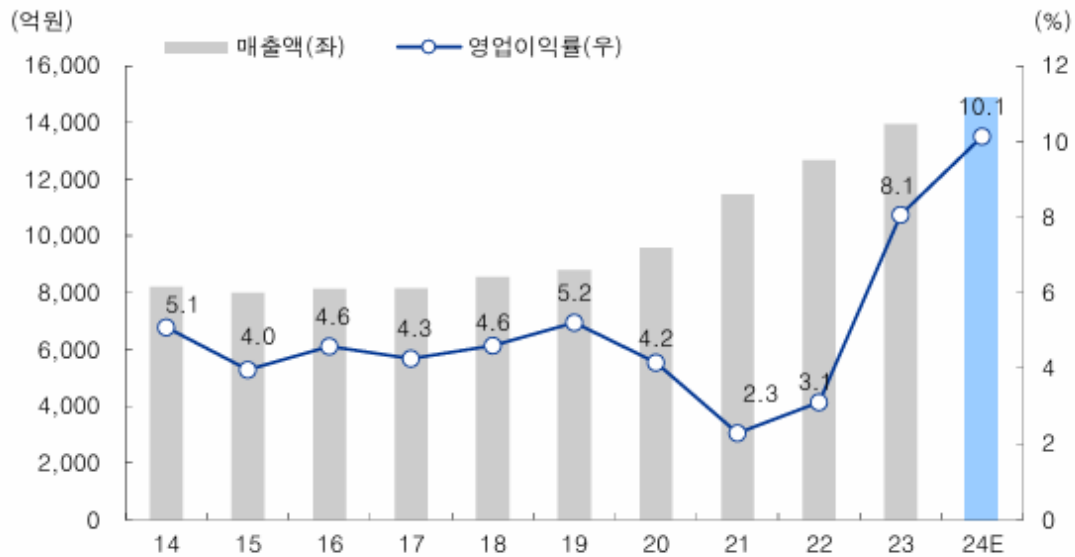
성수기 빙과 판매 호조 기대

해외 매출 비중(내부거래 제거)이 작년 기준 12% 수준이다. 매년 1~2%p 증가하고 있다. 속도면에서 다소 아쉽지만 올 들어 영국 등 유럽 지역에 신규 진출하는 등 해외 판로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매수 의견을 유지하며, 2024~25년 높아진 실적 추정치를 반영해 목표주가를 13만원(기존 10만원)으로 상향한다.

(단위:십억원,배)	2022	2023	2024F	2025F	2026F
매출액	1,268	1,394	1,489	1,602	1,697
영업이익	39	112	151	156	168
세전이익	37	111	153	162	180
지배주주순이익	26	86	119	125	138
EPS(원)	2,607	8,752	12,044	12,668	14,048
증가율(%)	-232.9	235.7	37.6	5.2	10.9
영업이익률(%)	3.1	8.1	10.1	9.7	9.9
순이익률(%)	2.1	6.2	8.0	7.8	8.1
ROE(%)	4.5	14.2	17.2	15.8	15.5
PER	15.1	6.2	9.0	8.6	7.7
PBR	0.7	0.8	1.4	1.3	1.1
EV/EBITDA	3.2	2.3	4.0	3.6	3.1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연결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빙그레, IBK투자증권



한국콜마
 폭발적인 주문에 대응하는 중
 [출처] 유안타증권 이승은 애널리스트

연초 가이드스를 넘어서는 성장률 전망

① 한국콜마[별도]: 24년 2분기 한국콜마[별도] 실적은 매출액 2,900억원(+14% YoY), 영업이익 410억원(+18% YoY)이 예상된다. 이 추세로 이어간다면 연초 동사가 제시한 한국법인 매출액 성장률 가이드스(+10% 중반 YoY)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동사 한국법인 24년 1분기 생산설비 평균가동률은 110.5%(+14%p YoY)이다. 작년 한국콜마는 생산설비를 최대 용량으로 운영했다. 올해부터는 기존에 생산에 활용되지 않았던 계열사인 콜마유엑스와 콜마스크의 화장품 공장 설비를 활용하여 생산 능력을 확장(기존 3.7억개 + 임시 CAPA 1억개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계열사 공장의 활용 덕분에, 비록 최대 생산 능력(CAPA)으로 가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성수기인 올해 2분기에는 폭발적인 주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매월 생산 능력에 대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동사 세종공장은 2024년 상반기 FDA OTC 실사 진행 최근 승인을 얻었다. 동사 주요 브랜드 경우 미국 OTC 승인용으로 6월부터 생산 중이다.

② 연우: 2분기 실적은 매출액 700억원(+11% YoY), 영업이익 16억원이 예상된다. 1분기 와 같은 1회성 비용 이슈(격려금 지급 13억원 등)가 사라지고, 미국의 대량 수주가 3월부터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1분기 기준 연우 매출 기준 수출 비중은 48%(322억원 +45% YoY)이며 미국 매출 비중은 33%(225억원, +109% YoY), 영업이익률은 19.7%(44억원)로 미국의 성장이 2분기에도 이어진다면 미국 실적 기여도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82,000원으로 상향

동사에 대해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82,000원으로 상향한다. 목표주가는 12M FWD EPS에 화장품 사업부의 PER을 25배(2014년 한국 화장품 수출이 대폭 증가하던 시기 화장품 업종 평균 PER), HK이노엔 15배를 적용하였다. 최근 화장품 ODM업체의 주가는 K-뷰티 글로벌 시장의 성장에 따라 고객사의 수주 증가로 인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해 기업의 밸류에이션 Re-Rating(재평가)이 이루어지고 있다.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2A	2023A	2024F	2025F
매출액	18,657	21,557	24,062	26,500
영업이익	733	1,361	1,890	2,380
지배순이익	-220	52	800	1,150
PER	-41.5	203.5	20.0	14.0
PBR	1.4	1.6	2.3	2.0
EV/EBITDA	16.7	11.5	11.3	9.5
ROE	-3.3	0.8	11.8	15.4

자료: 유안타증권



케이엔에스

4680 원통형 배터리 성장에 따른 폭발적 수주 기대

[출처] [하나증권 조정현 애널리스트](#)

2차전지 핵심 부품 자동화 장비 제조 업체

케이엔에스는 2006년 설립된 2차전지 CID, BMA, Cap 자동화 장비 제조 업체다. CID는 배터리 내부의 과열 및 압력을 감지해 전류를 차단하는 안전 부품으로, 원통형 및 각형 배터리 상단에 부착된다. 동사는 2015년 전기차용 원통형 배터리 CID 자동화 제조 장비 개발에 성공하며 2차전지 시장에 본격 진출했으며, 조립공정과 팩공정에 적용되는 BMA 장비까지 개발하며 파우치, 각형, 원통형 배터리 부품 자동화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고객사는 글로벌 셀메이커 3사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의 1차 벤더다. 2023년 매출액 300억원을 기록했으며, 장비별 매출 비중은 원통형 CID 50%, BMA 자동화 설비 18%, 반도체 및 자동차 부품 장비 30%, 각형 Cap Ass'y 장비 2%다.

4680 배터리 시장 개화 수혜 전망

올해 하반기 주목해야 할 모멘텀은 주요 엔드 고객사들의 4680 배터리 확대다. 특히, 2170 □ 4680 원통형 배터리 폼팩터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2170에서는 상단에만 CID가 접합되는 구조인 반면, 4680 배터리는 상하단이 열려있는 구조로, 양극에 리벳(Riveting) 프레스 공정이 추가된다[도표 3]. 케이엔에스는 작년 4680 원통형 배터리용 CID 및 리벳 자동화 장비를 개발하여, 올해 6월 국내 최초 공급에 성공했다. 수주 금액은 36억원으로 장비 1대 공급 가격이다. 4680 배터리 1GWh 당 동사 리벳 장비 약 3~6대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며, 1GWh 당 최소 약 100억원의 장비 수주가 기대된다. 글로벌 셀메이커들의 4680 배터리 증설이 2025년부터 본격화되는 만큼, 올해 하반기부터 폭발적인 4680 리벳 자동화 장비 수주를 기대할 수 있다. 주요 4680 원통형 배터리 제조사 삼성SDI(미국 인디애나 14GWh) 및 LG에너지솔루션(오창 9GWh, 미국 애리조나 36GWh)의 현재 확정된 증설 계획만 고려하더라도, TAM은 약 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CID 자동화 장비에서도 대부분의 2170 배터리 부품사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어 4680 배터리에서도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미국 IRA 영향으로 인해 주요 중화권 고객사인 종루이(Zhongrui)와 미국 및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올해 하반기 JV 설립을 계획중에 있어, 향후 4680 배터리 CID 부품 제조 사업까지 확대가 기대된다.

2024년 매출액 377억원, 영업이익 56억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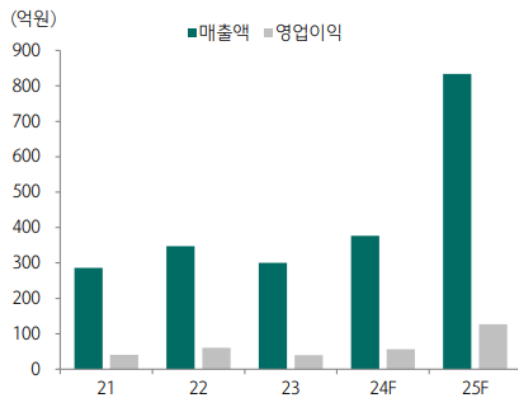
2024년 매출액 377억원(+25.6%, YoY), 영업이익 56억원(+42.1%, YoY)으로 전망된다. 2025년 4680 배터리 장비 수주가 본격화되는 시점으로, 매출액 834억원(+121.2%, YoY), 영업이익 127억원(+125.3%, YoY)으로 전망된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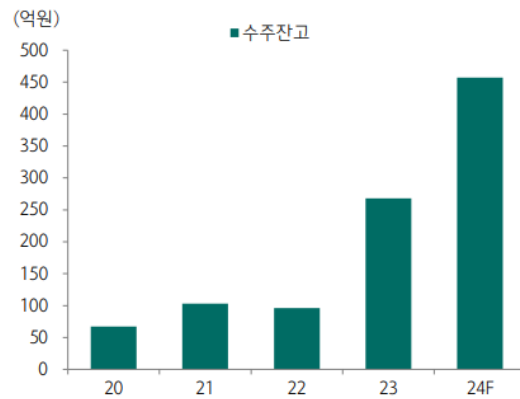
투자지표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11	25	35	30
영업이익	1	4	6	4
세전이익	1	4	6	4
순이익	1	4	5	3
EPS	415	1,256	1,584	1,003
증감율	57.2	202.7	17.0	(36.7)
PER	N/A	N/A	N/A	62.6
PBR	N/A	N/A	N/A	5.5
EV/EBITDA	N/A	N/A	N/A	50.0
ROE	11.5	25.9	22.4	7.2
BPS	3,595	4,852	6,974	11,347
DPS	3,500	0	0	0

도표 1. 연간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케이엔에스, 하나증권

도표 2. 연간 수주잔고 추이 및 전망



자료: 케이엔에스, 하나증권

도표 3.4680 원통형 배터리



자료: 케이엔에스, 하나증권



LG생활건강
편안한 주가

[출처] NH투자증권 정지윤 애널리스트

2분기가 지나면 편안한 실적과 현재 주가

목표주가를 50만원으로 19% 상향. 12M Fwd EPS에 Target PER 20배 적용, 2024E/2025F EPS 추정치를 각각 +6%, +9% 상향 조정한 데 기인. 2분기를 지나면 대중국 실적은 완전한 회복 추세 접어들 전망. 1분기 Douyin 중심 이커머스 채널에서 양호한 성과를 보였고, 후를 제외한 기타 브랜드 오프라인 매장 철수에 따른 매출 감소도 대부분 마무리. 비중국 지역 확장은 업종 내 가장 더디지만, 북미 손익 안정화와 신규 채널에 적극적으로 대응 중. 하반기 면세와 중국 실적 기저도 편안한 데다, 소비 개선 가능성도 열려 뒤야. 최근 화장품 섹터 전반 주가가 크게 상승하여, 상대적인 재평가 여력 존재. 현재 주가(6/14, 401,000원) 12M Fwd 16배에 불과, 업사이드 여력 고려해 투자의견 Buy로 상향

2Q24 Preview: 컨센서스 부합 추정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조7,841억원(-1% y-y), 영업이익 1,537억원(-3% y-y)으로 컨센서스 영업이익 부합하는 실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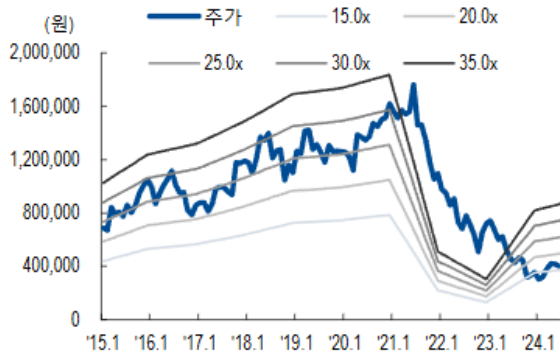
화장품 매출액 7,448억원(-5% y-y), 영업이익 603억원(-14% y-y) 추정. 주요 채널별 매출을 살펴보면, 면세는 1,848억원(-23% y-y)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 성장하며 안정적인 이익 레벨 예상. 중국은 1,660억원(+9% y-y)으로 온라인 성장이 오프라인 부진을 상쇄할 전망. 2분기 오후, 숨 매장 철수를 마무리하였기에 상반기까지는 오프라인 매출 기저 부담 상존. 하지만 천기단 리뉴얼 제품을 중심으로 Douyin, Tmall 등 이커머스 비중 확대로 전체 매출은 반등 예상

생활용품 매출액 5,460억원(flat y-y), 영업이익 355억원(+29% y-y) 추정. 에이본 해외 사업 철수로 매출은 미미하겠으나, 국내 프리미엄 브랜드 믹스 개선 지속. 음료 매출액 4,932억원(flat y-y), 영업이익 579억원(-4% y-y) 추정. 내수 경기 위축, 원부자재 가격 부담 등으로 전년 대비 마진 축소 예상

	2023	2024E	2025F	2026F
매출액	6,805	7,111	7,390	7,701
증감률	-5.3	4.5	3.9	4.2
영업이익	487	598	651	699
증감률	-31.5	22.7	8.9	7.4
영업이익률	7.2	8.4	8.8	9.1
(지배지분)순이익	143	372	417	452
EPS	8,664	23,234	25,981	28,155
증감률	-40.7	168.2	11.8	8.4
PER	41.0	17.3	15.4	14.2
PBR	1.2	1.2	1.2	1.1
EV/EBITDA	6.9	6.5	5.7	5.0
ROE	2.7	6.7	7.1	7.3
부채비율	30.1	29.7	28.6	27.5
순차입금	-780	-1,191	-1,623	-2,0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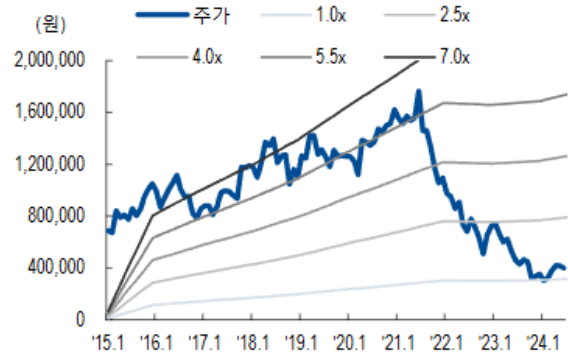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 원, 배

그림1. LG생활건강 12M Fwd PER B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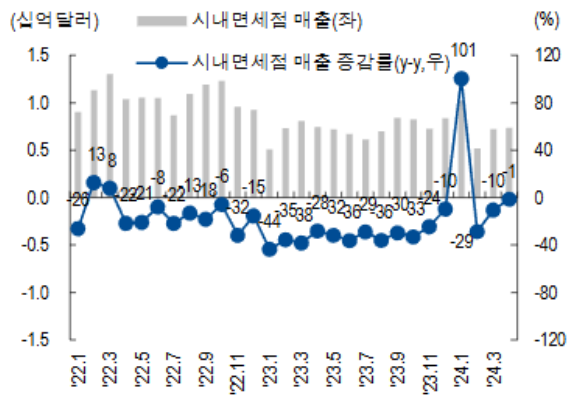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LG생활건강 12M Fwd Trailing PBR B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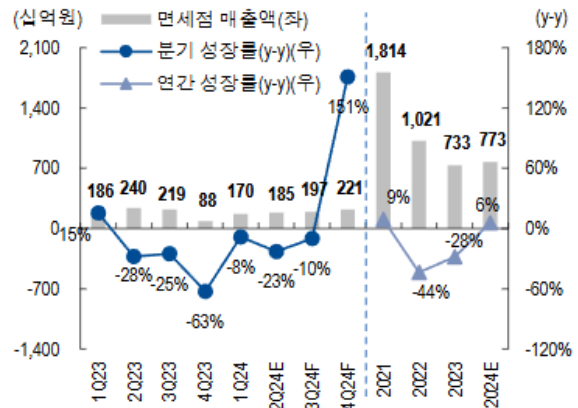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한국 월별 시내 면세점 매출액 및 증감률 추이



자료: 면세점협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LG생활건강 면세점 매출액 추정



자료: LG생활건강,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추정



아모레퍼시픽

정방향

[출처] NH투자증권 정지윤 애널리스트

아픈 손가락 중국, 치유제는 비중국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 24만원으로 14% 상향. 12M Fwd EPS에 Target PER 35배 부여. 올해 중국 사업구조 개선으로 2024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10% 하향하나, 2025년 영업이익 추정치 큰 변동 없음. 2~3분기 중국 사업 적자 예상보다 심화되겠으나, 탄탄한 코스알엑스 실적이 이를 방어할 것. 2024년 한국을 제외한 비중국 매출이 중국향 매출을 역전하며, 향후 3개년 동안 중국 확장 당시(2014~2015년) 매출 규모를 뛰어 넘을 전망. 즉, 중장기적으로 비중국 성장 모멘텀 견조하며, 중국 손익 안정화에 따른 전사 해외 이익 증가, 국내 화장품 채널 변환 영향 축소에 힘입어 체질 개선 이어갈 것으로 Top-pick 관점 유지

2Q24 Preview: 컨센서스 하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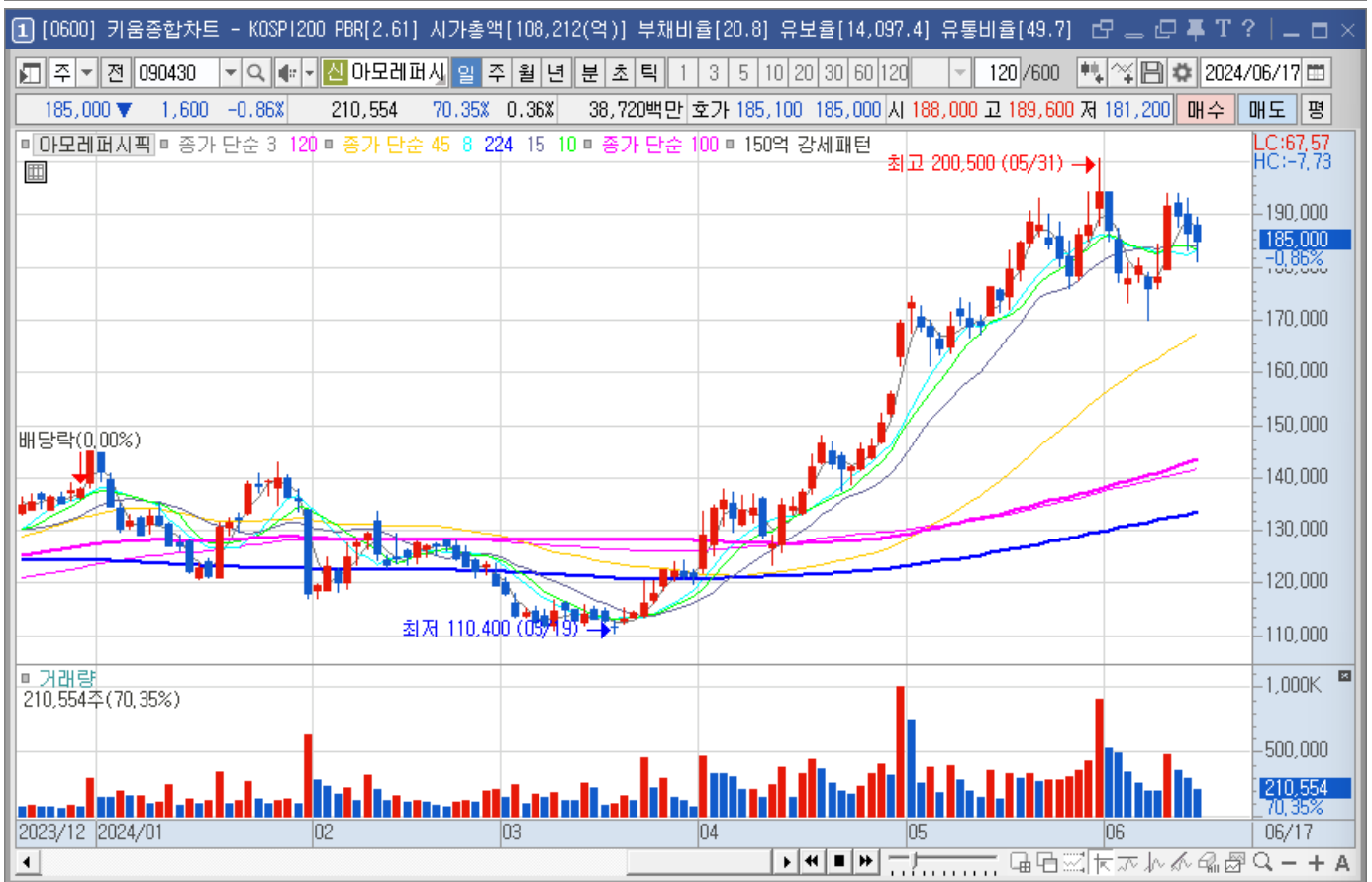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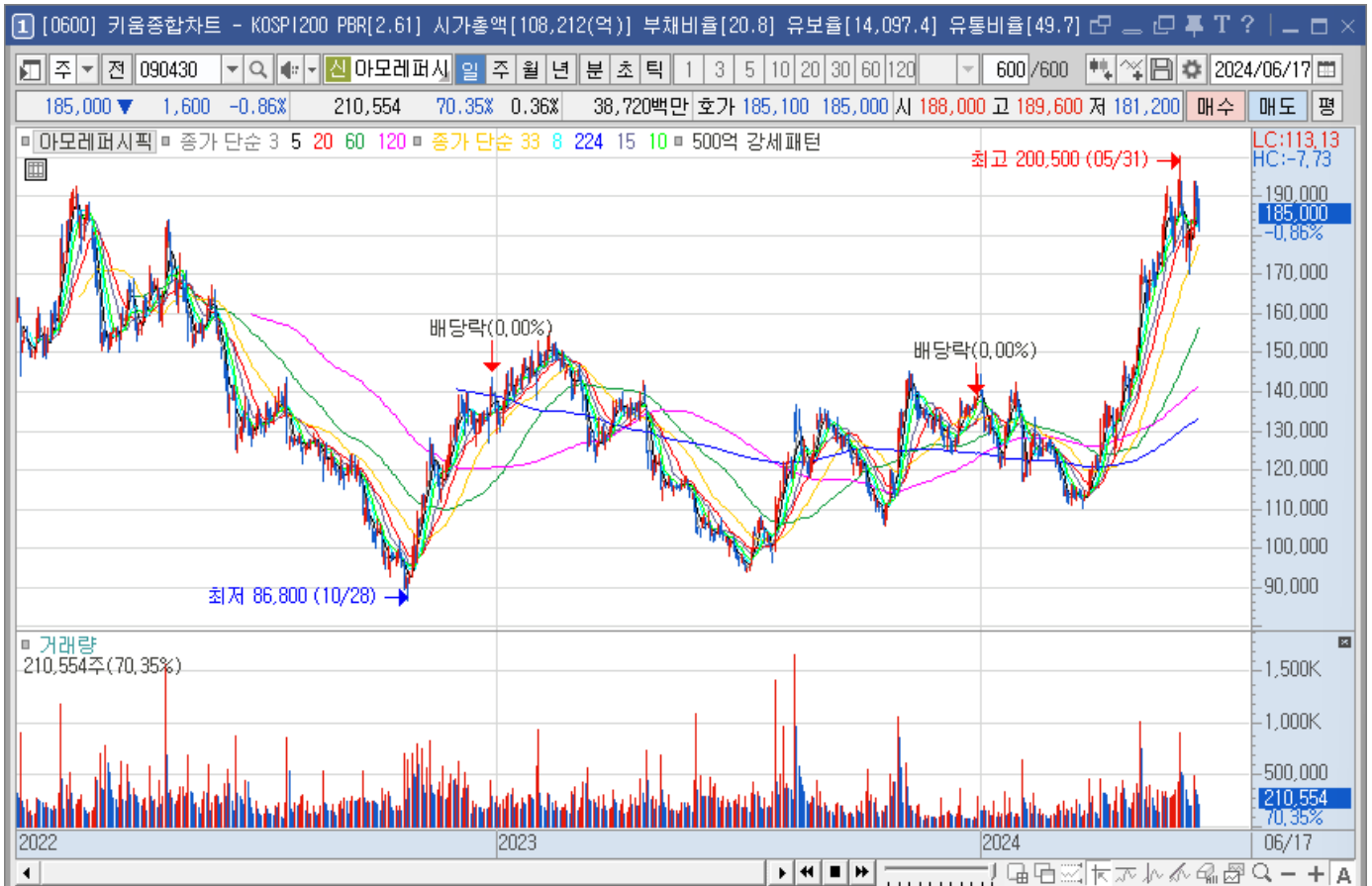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조17억원(+6% y-y), 영업이익 648억원(+1,000% y-y)으로 컨센서스 영업이익 하회 전망. 중국 총판 사업구조 개선 작업 감안해 중국 사업 매출액 및 영업적자 규모를 기존 대비 큰 폭 하향 조정한 점이 주요

국내 화장품 매출액 4,270억원(-7% y-y), 영업이익 401원(+28% y-y) 추정. 채널별 매출 성장률(y-y)은 면세(-20%), 이커머스(-5%)로 면세 채널은 재차 역성장 전환하겠으나, 할인율 축소 등으로 국내 마진은 꾸준히 개선 추세. 생활용품 매출액 997억원(+4% y-y), 영업이익 40억원(-26% y-y) 추정

해외 매출액 3,380억원(-9% y-y), 영업적자 208억원(적자축소 y-y) 추정. 지역별 매출 성장률(y-y)은 아시아 -16%(중국 -32%, 기타 2%), 북미 13%, EMEA 13% 추정. 서구권은 세포라 중심의 sell-in 매출 일시적 둔화, 중국은 총판 사업구조 개선 및 법인 효율화 작업, 전년 수준의 마케팅 비용 집행으로 실적 하향 불가피, 이에 중국 적자폭 눈높이(-90억원 → -360억원) 하회 전망. 5/1일자로 편입된 코스알엑스 매출액 1,223억원, 영업이익 422억 추정

	2023	2024E	2025F	2026F
매출액	3,674	4,237	4,855	5,166
증감률	-11.1	15.3	14.6	6.4
영업이익	108	402	634	697
증감률	-49.5	271.7	57.7	9.9
영업이익률	2.9	9.5	13.1	13.5
(지배지분)순이익	180	314	476	513
EPS	2,914	5,197	7,950	8,569
증감률	33.9	78.4	53.0	7.8
PER	49.8	35.9	23.5	21.8
PBR	2.0	2.5	2.4	2.2
EV/EBITDA	23.4	16.3	11.6	10.6
ROE	3.7	6.3	9.0	9.1
부채비율	20.8	21.0	21.0	20.3
순차입금	-436	-865	-1,307	-1,730

단위: 십억원, %, 원, 배



비씨엔씨

방향은 다시 위를 가리킨다

[출처] NH투자증권 심의섭 애널리스트

이미 시작된 업황 턴어라운드와 지속되는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

지난해 동사는 반도체 업황 부진 및 이로 인한 고객사 쉐어 테스트 지연 등으로 인해 실적 부진을 지속하였으나, 업황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며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 진입. 하반기부터는 업황 회복과 더불어 국내외 고객사 채택 품목 확대 등에 따른 QD9+ 매출 증가로 완전한 실적 성장 전망

연초부터 반도체 고객사들의 가동률이 반등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2분기부터 고객사 재고 소진 등으로 인해 발주 증가 추세로 접어든 것으로 추정. 지난해 말부터 주요 고객사향 QD9 및 QD9+ 품목 채택이 확대되기 시작해 향후에도 채택 품목 확대가 지속 전망되는 바, 2025년 성장폭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

추가적으로 개발 중인 대체 소재·부품(CD9, SD9, ST-T1, BC-T1) 또한 지속 확대 중. 올해 하반기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적으로 동사 실적에 점차 반영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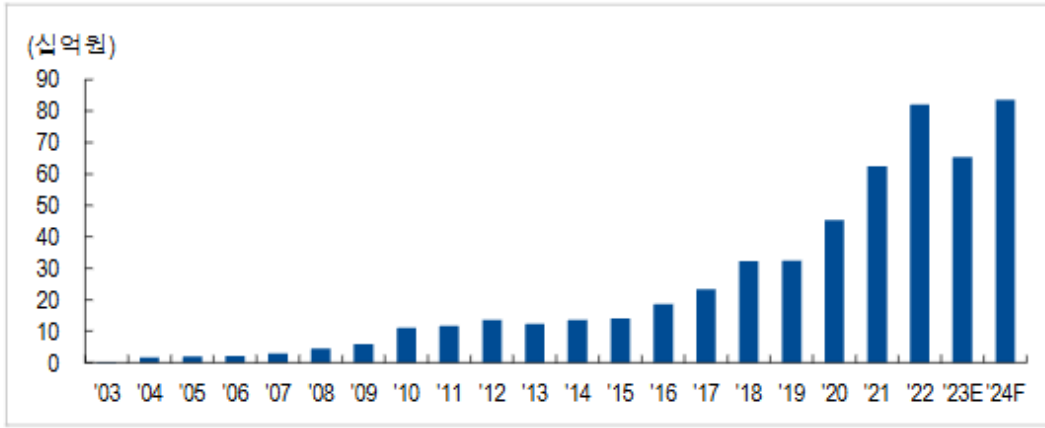
방향은 위, 기울기는 하반기 실적을 통해 확인

2024E 매출액 835억원(+27.8% y-y), 영업이익 67억원(흑자전환 y-y, 영업이익률 8.0%) 전망. 주요 고객사들의 가동률 회복 속도에 따라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기울기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나, 업황 회복 국면에서 제품 침투 및 라인업 확장을 지속하는 동사에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 장기적 관점에서 반도체 고단화 및 미세화 트렌드에 따른 사업적 기회요인 부각 또한 기대

	2021	2022	2023	2024E
매출액	64.3	82.1	65.3	83.5
증감률	35.8	27.6	-20.4	27.8
영업이익	9.2	11.6	0.0	6.7
증감률	47.7	25.4	적전	흑전
영업이익률	14.4	14.1	-0.1	8.0
(지배지분)순이익	7.3	10.0	1.2	6.3
EPS	803	835	97	490
증감률	253.9	3.9	-88.4	404.0
PER	0.0	18.1	222.9	38.7
PBR	0.0	2.6	3.7	3.0
EV/EBITDA	2.1	13.3	56.8	20.9
ROE	36.4	19.5	1.7	8.1
부채비율	133.4	51.3	79.8	77.1
순차입금	26.1	17.5	39.7	33.9

단위: 십억원, %, 원, 배

비씨엔씨 장기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비씨엔씨,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삼양식품

미국, 유럽 확장으로 높아질 가치

[출처] 키움증권 박상준 애널리스트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812억원으로 상향

삼양식품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812억원(+84% YoY)으로 상향 조정한다. ASP와 수익성이 높은 수출의 증가세 당사 예상 보다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전사 매출총이익률을 상향 조정하였기 때문이다. 2분기 수출 호조는 중국 온라인 채널 정상화, 미국/유럽 메인스트림 채널 및 아시안 마트 입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국/유럽 수요의 빠른 증가에 힘입어, 과거 대비 중국의 계절적 수요 변동이 적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전망된다.

판매량 상승세에 더해지는 ASP 상승 모멘텀

현재 불닭볶음면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은 他 지역 대비 물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ASP가 상대적으로 높고, 라면과 같은 저가 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유럽 매출 비중 증가, 유통 채널 수 증가에 따른 협상력 상승 등의 효과에 힘입어, 추가적인 ASP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산능력(Capa)도 내년 5월 밀양 2공장 완공 이후 판매량 기준으로 +40% 정도 상향될 예정이다. 동사는 밀양 1공장 증설 이후, 판매량 기준 Capa가 +50% 정도 증가하였으나, 분기 최대 매출은 약 +96% 증가하였다. 22년 11월 가격 인상(+9.7%), 달러 강세, 수출 비중 확대, 매출 에너지 축소 및 현지 법인 설립 효과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밀양 2공장 증설 이후, ASP가 높은 미국과 유럽 중심의 판매 증가가 기대되고, 신규 유통 채널 확대 및 현지 판매 법인 설립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공장 완공 이후 분기 최대 매출은 Capa 증가율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 830,000원으로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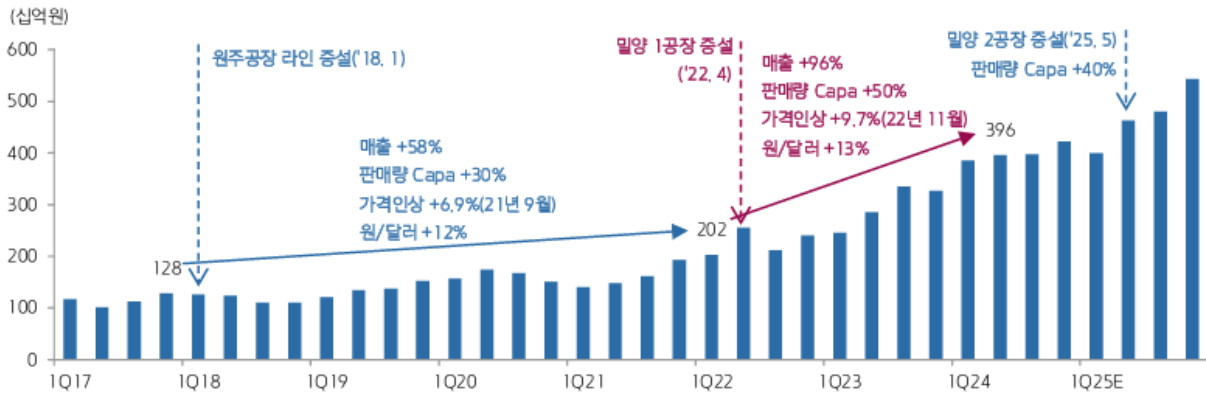
삼양식품에 대해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830,000원으로 상향('25E EPS에서 Target PER 20배 적용)한다. 동사는 주력 브랜드인 불닭볶음면의 수출이 미국과 유럽 시장으로 확장되면서, 업종 내

에서 차별적인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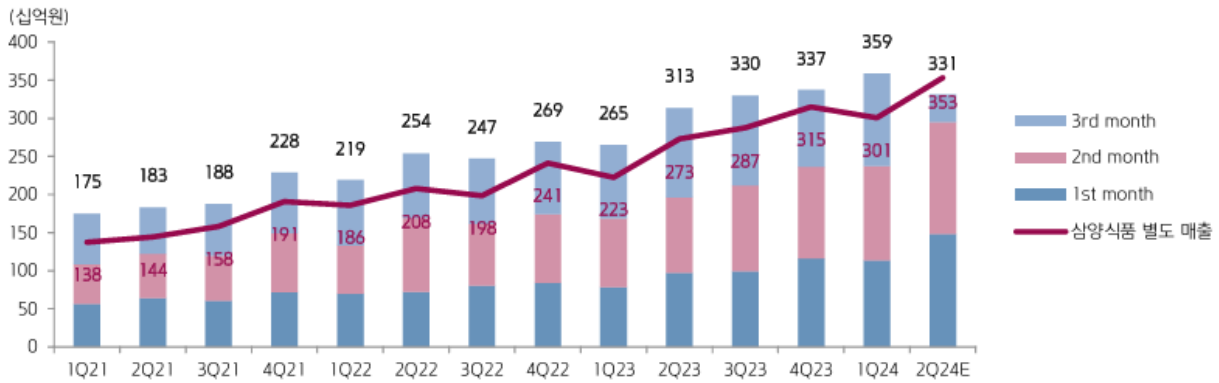
(억원, IFRS **)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909.0	1,192.9	1,600.8	1,885.6
영업이익	90.4	147.5	324.2	396.1
EBITDA	115.3	179.7	356.5	438.9
세전이익	102.0	156.3	336.8	413.6
순이익	80.3	126.6	258.0	313.5
지배주주지분순이익	79.8	126.3	257.8	313.1
EPS(원)	10,593	16,761	34,218	41,565
증감률(%YoY)□	41.6	58.2	104.1	21.5
PER(배)	12.0	12.9	17.9	14.7
PBR(배)	2.11	2.88	5.72	4.19
EV/EBITDA(배)	9.6	9.7	12.9	10.0
영업이익률(%)	9.9	12.4	20.3	21.0
ROE(%)	18.9	24.8	37.6	32.9
순차입금비율(%)	32.8	17.8	-1.2	-20.8

삼양식품 분기별 매출액 추이 및 전망(연결기준)



자료: 삼양식품, 키움증권 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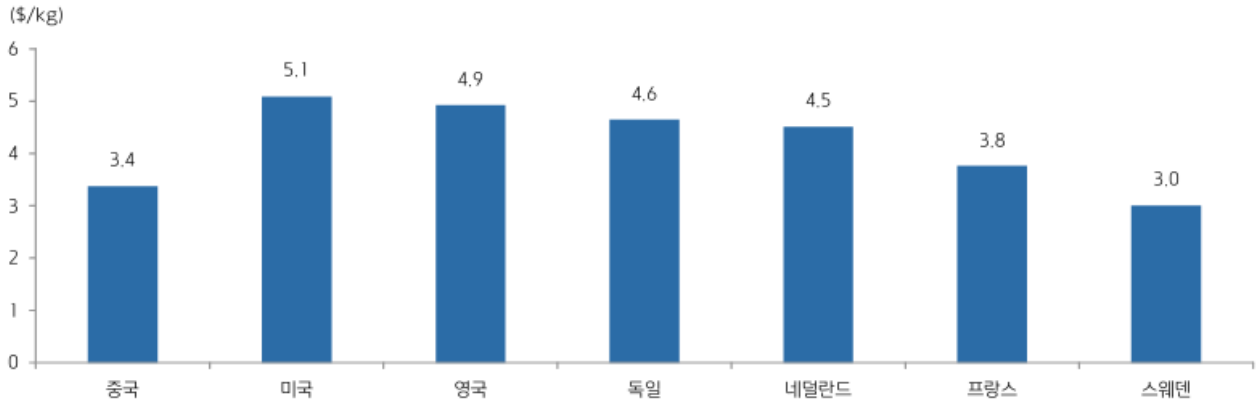
삼양식품 별도 매출액 vs 한국 라면 전체 수출액 추이



자료: 삼양식품,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키움증권 리서치(수리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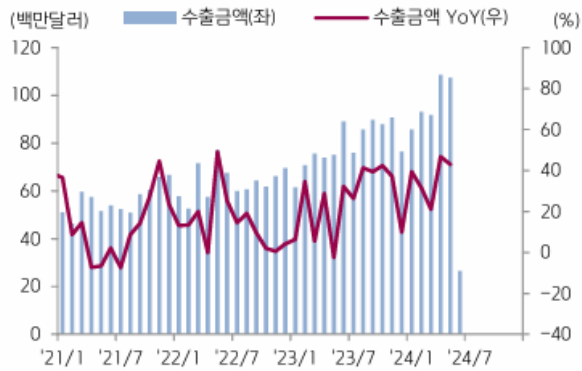
주: 1) 2Q24 삼양식품 별도 기준 매출액은 당사 추정치, 한국 라면 전체 수출액은 4/1~6/10 기준임.

라면 수출 단가 비교(한국 전체 수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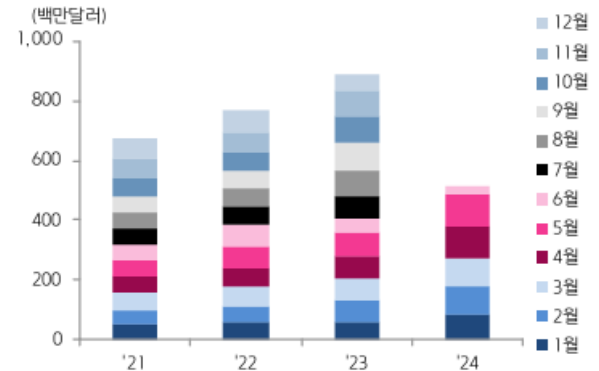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24년 5월 수리일 기준)

한국의 글로벌 라면 수출액 추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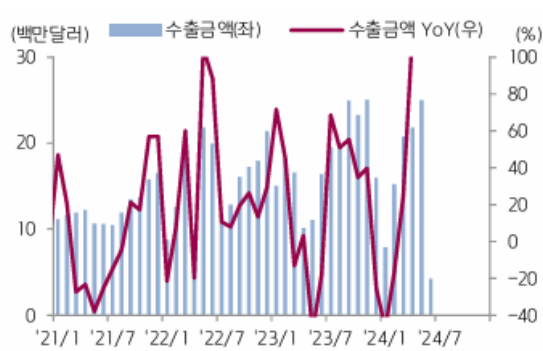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키움증권 리서치(수리일 기준)
 주: 1) '24/6은 '24. 6. 1~10 기준

한국의 글로벌 라면 수출액 추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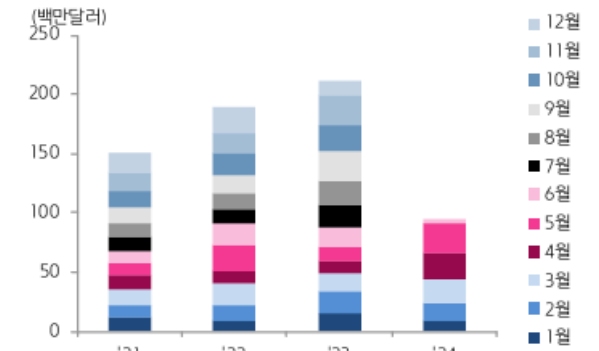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키움증권 리서치(수리일 기준)
 주: 1) '24/6은 '24. 6. 1~10 기준

한국의 중국向 라면 수출액 추이 (1)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키움증권 리서치(수리일 기준)
 주: 1) '24/6은 '24. 6. 1~10 기준

한국의 중국向 라면 수출액 추이 (2)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키움증권 리서치(수리일 기준)
 주: 1) '24/6은 '24. 6. 1~10 기준

